

미국 R&D 예산(FY'92) 13% 증액 요구

부시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1992년도 연방 정부 예산(안) 중에서 R&D 부문의 예산을 전년 대비 13%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FY'92 연방 정부 예산(안)의 총액은 1조 4,459억 달러로서, 이는 1991년에 비해 2.0% 증가한 긴축 예산인데, 물가 상승률 6%를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과학 기술 관련 예산안은 13% 증가한 756억 달러(총액의 5.2%)이다. 이러한 획기적 조치는 최근 2년('90~'91) 동안 미국의 총 R&D 투자가 불변 가격 기준으로 감소했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

내년 예산의 주요 구성을 살펴보면 국방 부문이 433억 달러(14.5% 증가), 비군사 부문(civilian R&D)이 288억 달러(9.5% 증가), R&D 시설투자가 35억 달러(15.0% 증가)를 차지하여, 걸프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국방 부문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기초 과학 연구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8% 늘어난 130억 달러이다.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기술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나, 특정 산업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비경쟁 단계와 공유성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의 역할을 한정시키고 있는 것도 이채롭다.

예산 편성 기초

FY'92 예산(안)의 편성 기초로서 첫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수익률이 높은 부문과 인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우선하는 한편 둘째, 에너지·환경·국방·국민 보건 등 국가적 요구(national needs)를 충족하려는 것이다. 셋째, 자연 과학의 최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21세기(next American century)”를 건설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이 위기의 의식을 느끼고 있는 과학과 수학 교육을 강화하여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저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투자 분야

비군사 부문으로서 8%의 증가세를 보인 기초 과학 분야의 투자를 살펴보면 국립 과학 재단(NSF)의 내년도 예산이 18% 증가한 2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역시 국립 보건원(NIH)에 50억 달러(8% 증가), 에너지부(DOE)에 18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많았던 초전도 입자가속기(Superconducting Super Collider) 사업에 FY'92 말을 완공 목표로 총예산 투자액 82.5억 달러 중 5억 3,400백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로서 10억 달러가 배정된 첨단 생산 기술(advanced manufacturing tech.)과 생명 공학 분야의 41억 달러가 주목을 끈다. 생명 공학 중에서 인간의 유전자 서열 분석 사업(Human Genome Project) 예산이 26% 증가된 1억 6,900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과학·수학 교육을 위해 19억 달러(13% 증가), 지구기상 변화 연구에 12억 달러(24% 증가)가 투자될 것이다. 그리고 고성능 계산·통신 장치 개발에 6억 3,800만 달러(30% 증가), NIST에 2억 4,800만 달러(15% 증가)를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고 있는 HDTV나 X선 기술 개발 예산은 크게 삭감되었다.

끝으로 총433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R&D 예산은 첨단 무기의 개발과 운용 및 시험 검사와 기초 연구에 투입될 것이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 12억 달러(20% 증가), SDE에 51억 달러, B2 Stealth기에 51억 달러, 핵 잠수함(SSN 21)에 23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

<주미 과학관 제공 자료, 미국과 일본의 일간 신문>